

법정으로 간 광주시체육회장 보선...후폭풍 증폭

낙선 후보들 "무자격 선거인 46명 참여·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

시체육회 직원들 선거 개입 의혹 주장도...선관위 결정 이목 집중

광주지법에 선거 무효 소송·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별도 제기

지난 13일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낙선 후보들은 불과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선거무효소송과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보궐선거에서 낙선

한 이강근·전갑수 후보 측은 무자격자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당선자 측이 사전 선거 운동을 했으며 '회장선거·당선 무효 이의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는 "출마자들은 선거 이후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시체육회선거 규정 제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전 후보는 이상동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골자는 무자격 유권

자가 선거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후보들은 "보궐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했다"며 "이들은 대한체육회 동호인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대의원들로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대의원 27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후보와 32표에 그친 이강근 후보를 물리치고 민선 2기 회장에 당선됐다.

사전 선거 운동과 시체육회 직원이 선거개입 의혹도 지적했다.

후보들은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4월30일 광산구의 모 식당에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직무가 정지된 직함이 표기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이 선거전에 제보로 접수되자 사실 조사가 나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식당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나 이 당선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은 또 "시체육회 직원은 후보 등록 전에 사퇴한 전임 회장의 공약자료를 전달한 뒤 반환을 요구했었으며 또 다른 직원도 투표당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체육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선자들이 이같은 내용의 이의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선관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낙선자들의 주장대로 무자격 유권자(46명·전체유권자

16.7%)가 투표에 참여했다면 표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한 뒤 10일 이내 조사 결과를 이의 신청을 제기한 후보 측에 통보하게 돼 있다.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사안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뢰 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낙선자들은 이와 별도로 지난 21일 같은 내용으로 광주지법에 선거무효소송과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후보들의 이의제기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하게 살펴 볼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펜싱 여자 개인·단체전 '금빛 찌르기'

남자 개인·단체전 각각 동메달 등 종별선수권 금 2·은 1·동 3 획득 올 첫 전국대회서 펜싱 명문 재확인

호남대학교 펜싱부가 올해 첫 출전한 전국 대회에서 펜싱 명문대학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호남대는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3위 등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냈다.

23일 호남대학교 펜싱부(감독 김병진·코치 모

효정)에 따르면 최근 충북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에서 막내린 제59회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부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은선·이혜진·이현정·전수인(이상 스포츠레저학과 4년)은 4강전에서 한국국제대학교를 45-26으로 꺾은데 이어 결승전에서 한국체육대학교를 45-41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여자부 개인전 사브르 종목에서는 2019나폴리 하계U대회에서 입상한 전수인과 김정미(3년)가 결승에서 만나 각각 금·은메달을 나눠 가졌다. 2019아시아청소년펜싱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 이현정은 3위를 차지했다. 호남대는 개인전에서 3

개의 메달을 쓸어들었다.

남자부도 메달을 추가했다. 단체전에서 윤석환(4년)·황현호·윤성현(이상 3년)·박종호(1년)가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개인전에서 윤성현이 3위에 입상했다.

호남대 펜싱부 김병진 감독은 "올해 첫 대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여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학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대회 선전을 바탕으로 다음 대회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쿄대 의대생, 세단뛰기 우승 '화제'

일본 관동지역 대학대회에서 도쿄대 육상부 역사 새기록 세

도쿄대학교 의학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 일본관동지역대학대회인 육상 여자 세단뛰기에서 우승해 화제를 모았다.

의학부 6학년인 우치야마 사쿠라(사진)는 22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 기온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00회 일본관동지역대학대회 여자 세단뛰기 결선에서 12m86을 뛰어 우승했다.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도쿄대 여자 선수가 관동지역대학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우치야마가 최초다"라고 전했다.

우치야마는 2019년과 2020년 이 종목 4위에 올랐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관동지역대학대회에서 우승하며 '도쿄대 육상부' 역사를 새롭게 썼다.

우치야마는 "(개인 최고 기록인) 13m를 넘게 목표였다. 기록상으로는 목표를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정도 규모의 대회에서 우승하는 건 처음이다.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고교 시절 멀리뛰기 선수였던 우치야마는 도쿄대 의학부에 진학한 뒤에도 지역 멀리뛰기 대회에 출전했다. 멀리뛰기 선수로는 일본 전국규모 대학대회 기준 기록을 통과하지 못했다.

대학 3학년이던 2018년부터 시작한 세단뛰기에서는 달랐다. 2019년부터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했고, 그해 일본대학선수권에서 13m를 뛰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사실 우치야마는 시상대에 오르지 않아도 '도쿄대의대생'이라는 타이틀로 주목받았다.

우치야마는 "2019년 관동지역대학대회에서 4위를 하고도 주목받았다"며 "내가 도쿄대생이



아니었으면, 기사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과를 내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우치야마는 "대학을 졸업하면 현실적으로 육상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그래도 나는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는 다른 선수와 달리) 6학년에도 대회에 출전한다"라며 "지금도 내게 보너스 스테이지다. 가을에 열리는 일본대학선수권에서 꼭 13m를 뛰겠다"고 "육상 선수로서의 마지막 목표"를 설정했다. /연합뉴스

17세 테니스 기대주 고프, WTA 투어 두번째 우승

에밀리아로마냐오픈 복식서도 우승 2관왕

열일곱 살의 여자 테니스 기대주 코리 고프(30위·미국·사진)가 두 번째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고프는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에밀리아로마냐오픈(총상금 18만9708 유로) 7일째 단식 결승전에서 왕창(48위·중국)을 2-0(6-1 6-3)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2019년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린츠 레이디스에서 15세의 나이로 우승해 팬들을 놀라게 한 고프는 1년 7개월 만에 자신의 두 번째 투어 대회 단식 타이틀을 획득했다.

고프는 올해 투어 대회에서 단식 4강 이상에 3차례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2019-2020년 총 21승을 거둔 고프는 올해엔 26경기에 나서 벌써 20승을 올렸다.

에밀리아로마냐오픈은 클레이코र्ट에서 열리는 대회다. 고프는 클레이코र्ट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 개막을 1주일여 앞두고 자신의 첫 클레이코र्ट 대회 단식 우승컵을 들어 올려 기대감을 높였다.

고프는 "사람들이 내가 클레이코र्ट에서 잘하는 선수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클레이코र्ट에서 우승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단식 랭킹에서 자신의 역대 최고 순위에 랭크돼 있는 고프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순위를 최고 25위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오는 30일 시작하는 프랑스오픈에서 시드 배정



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메이저대회 시드 배정은 32위까지 받는다.

한편, 고프는 캐서린 맥널리(미국)와 조를 이뤄 출전한 복식에서도 우승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

랐다.

고프-맥널리 조는 결승에서 안드레아 클레파치(슬로베니아)-다리아 주라크(크로아티아) 조에 2-0(6-3 6-2)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로하스, 여자 세단뛰기 15m43 '역대 2위'

도쿄올림픽 금메달 후보 1순위

올리마르 로하스(26·베네수엘라)가 육상 여자 세단뛰기 역대 2위 기록을 작성했다.

로하스는 23일(한국시간) 스페인 안두하르에서 열린 2021 세계육상연맹 콘티넨털 투어 여자 세단뛰기 결선에서 15m43을 뛰었다.

실외 경기 개인 최고(중전 15m41)이자, 역대 세계 2위 기록이다. 여자 세단뛰기 세계기록은 1995년 이네사 크라베츠가 세운 15m50이다.

로하스는 2019년 실내경기에서 15m43을 뛰어 '인도어 세계기록'을 세웠다.

육상에서 더 높게 평가하는 '실외 경기' 세계 기록에서 7cm 차로 접근했다.

로하스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4m98로 2위에 올랐다.

세계선수권에서는 2017년 런던(14m91)과 2019년 도하(15m37)에서 연속해서 우승했다.

로하스는 올해 7월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후보 1순위'로 꼽힌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링: 더 라스트 챔퍼
- 2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 3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더 스파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4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토토리! 우리 돌만의 여름
-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 6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 9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비와 당신의 이야기 아들의 이름으로
- 7관 씨네카를 더 스파이, 스파이럴, 비와 당신의 이야기 혼자 사는 사람들
- 8관 씨네카를 도라에몽: 스텐바이미 2, 내일의 기억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링: 더 라스트 챔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GAC 11시 음악산책2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일시: 2021.05.28.(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클
일시: 2021. 06. 26.(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